

美 '빌보드 200' 2위 이젠 블랙핑크 타임

▶ 걸그룹 블랙핑크의 '대기록'이 시작됐다. 최근 발표한 정규 1집 '디 앨범'으로 그룹은 최신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라 케이팝 걸그룹 최고 성적을 거뒀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첫 주간 판매지수 11만점 존재감
실물앨범 판매량이 가장 큰 비중
英 오피셜 차트도 2위 수직 상승

이제, 블랙핑크의 시간이다.
블랙핑크가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2위에 오르며 케이팝 걸그룹 최고 기록을 세웠다. 미국 음악전문매체 빌보드는 12일(한국시간) 예고 기사를 통해 블랙핑크의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이 최신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트에서 케이팝 걸그룹이 기록한 사상 최고 순위이다. 전 세계 여성그룹으로서는 2008년 4월 미국 대니티 케인의 '웰컴 투 더 하우스

스'(Welcome to the Dollhouse) 이후 12년 만에 쓴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데뷔 4년 만에 케이팝 최고 걸그룹으로**
2016년 디지털 싱글 '스퀘어 윈'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공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내 정상의 걸그룹으로 우뚝 성장해왔다. 특히 2018년 첫 번째 미니앨범 '스퀘어 업'으로 '빌보드 200'에 40위로 진입한 후 지난해 '킬 디스 러브'로 24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세를 과시했다. 그동안 앨범보다는 곡 단위의 싱글 형태로 활동하면서 '핫 100' 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앨범을 통해 최상위권에 오르며 세계 음악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빌보드가 공개한 닐슨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이 2일 발표한 '디 앨범'은 첫 주(2~8일) 판매지수 11만점을 기록했다. 실물앨범 판매량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횟수 등을 합산해 환산하는 지수에서 실물앨범 판매량이 8만100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도 각각 2만6000점과 2000점을 기록했다. 빌보드는 "머천다이즈(MD) 번들 및 여러 종류의 CD 판매에도 힘입은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차트까지...글로벌 시장 넓힌다

'디 앨범'은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음악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발매 첫 주 2위를 차지하며 역시 케이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지난해 '킬 디스 러브'로 40위

로 진입한 후 수직 상승했다.

블랙핑크의 이번 앨범 목표는 뚜렷했다. 글로벌 진출. 이를 위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 테디, 미국 프로듀서 토미 브라운 등과 협업했다. 2018년 유니버설뮤직 산하 인터스코프 레코드와도 계약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왔다.

계획을 이룬 이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도 발탁돼 14일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를 통해 데뷔 이후 4년의 시간을 공개한다. 이를 기념하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시작으로 LA,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전 세계 주요 도시 옥외 광고판을 장식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김창완, 37년만의 솔로 앨범 '문' 18일 발매



김창완

록그룹 산울림 출신 가수 김창완이 37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김창완의 소속사 이파리엔터테인먼트는 12일 "김창완의 솔로 앨범 '문'(門)'이 18일 발매된다"고 밝혔다. 김창완이 솔로 가수로 앨범을 내놓는 것은 1983년 '기타가 있는 수필' 이후 처음이다. 김창완은 소속사를 통해 "진심을 담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을 살자'는 마음으로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노인의 벤치'를 비롯한 11곡이 수록됐다. 김창완은 친동생 김창훈·김창익과 산울림을 결성해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했으며, 연기도 병행하고 있다.

'커밍아웃' 가수 권도운, 정의당 입당



권도운

최근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트로트 가수 권도운(30)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권도운은 12일 소속사 믿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정의당 입당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입당 취지를 밝혔다. 권도운은 전날 '세계 커밍아웃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회원으로 입회하기도 했다. 2010년 데뷔한 권도운은 6일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최초로 커밍아웃을 해 화제가 됐다.

'가짜사나이' 이근 전 대위 성폭력 의혹



이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출연을 앞둔 KBS 1TV 새 교양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제작진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KBS 관계자는 12일 "관련 논란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23일 첫 방송하는 '재난탈출 생존왕'의 패널로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한 유튜브가 이 전 대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해 차질이 빚어졌다. 해당 유튜브는 앞서 이 전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 전 대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BTS "한국전쟁" 발언에 중국 누리꾼들 발끈

美 밴플리트 상 소감 발언 꼬투리
일부 中 누리꾼 이미 탈퇴 움직임

그룹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반발한 일부 중국 팬들이 팬클럽 '아미'에서 탈퇴하는 등 현지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은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

티가 주는 밴 플리트상을 받으며 영상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그는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임을 떠올리며 "두 나라가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 플리트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밴 플리트 장군이 1957년 세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95년 그를 기리며 제정했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발언은 그러나 중국 누리꾼의 격양된 반응을 불렀다고 한국시보와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 일부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비난을 쏟아내며 "국가적 존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팬클럽 '아미' 탈퇴와 함께 한국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의 방탄소년단 에디션 판매 중지 관련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중국에서 자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抗美援朝)'라 부르고 있다. 현지 누

리꾼은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 중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을 뜻하면서 자국의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고통"을 안겼다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관련 보도는 전했다. 현재 중국은 최근 '무역전쟁' 등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팬들도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의 입장이 이해한다"는 옹호의 뜻을 밝히는 글들이 웨이보에 오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YouTube '성경 기부 경제학' 3번 보면 반려동물 (개, 고양이) 도기본소득 150만원 이상 평생 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종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춘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권명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민성 010-3315-1517 / 송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만 010-4741-7008 ●초안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대전 김원구 010-8029-0059 / 임종환 010-3742-5998 / 전달만 010-2391-8259 ●대구 권명희 010-4846-4950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804-3424 ●인천 박준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이천 허한석 010-4707-2659 ●한신대 010-5177-9479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용인 김기명 010-6285-7653 ●수원 함만드래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영대 010-8005-3616 ●경기 남부 함베르토 010-6806-1931 / 노수림 010-5153-5983 ●영광 교명철 010-5463-6952 ●충주 송중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하위애 윤이나 010-8763-8742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 인류의 구세주
- ☐ 21세기 제2의 석유
- ☐ K-biz, K-pay, K-platform
- ☐ 성경 기부경제학
- ☐ '자본공유앱APP'
- ☐ 선착순 자동결제이 기부 품앗이게

하이우분투(주)
Hiubuntu 1644-6733